현대북한연구, 11권 3호(2008), ©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pp.58~98.

북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김종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인가?

> 만약 사적 자본주의가 제거된다면 국가 관료제만이 단독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란히 그리고 가능성에 따라 서로에 대립해 기능하는, 따라서 줄곧 어느 정도 상호적으로 견제하는 사적 그리고 공적 관료체제가 하나의 유일한 위계체제로 통합될 것이다. …… 관료체제는 …… 아마 한 때 인간들이 이집트 국가의 땅 붙박이 노예(Fellahs)처럼 무력하게 복종하도록 강요되는 미래의 저 복종의 가막소(the shell of bondage)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유화 조치였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유화를 통해 거대한 관료체제로 전환되었다. 즉, 국

---

* 이 논문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KRF-2007-322-B00006).

1)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1,402.

유화 조치는 전 인민을 물적 수단으로부터 소유권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관료체제의 전면화를 의미했다. 베버(Max Weber)의 "만약 사적 자본주의가 제거된다면 국가관료제만이 단독으로 지배"할 것이라는 예견은 현실로 나타났다. 완벽한 소유권적 분리의 결과 "노동자의 예속성은 …… 국가사회주의에서 전적으로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고, 관료들도 국가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속성이 현저히 증가했다.[2)]

북한도 예외 없이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국유화 조치 결과 관료화의 철칙인 행정참모와 행정수단의 소유권적 분리라는 근본 원리가 관철되었다. 따라서 북한에는 정치권력을 보유한 지배집단을 기축으로, 지배집단에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관료(당 및 국가 간부)의 삼중구조가 구축되었다.[3)]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 산업화였다. 근대의 모든 체제와 국가는 산업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도그마(dogma)를 추종했다. 사회주의 체제는 더욱 가혹하게 산업화를 추진했으며, '발전에 대한 강박'에 복속된 체제였다. 이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계획경제였다.[4)]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으며,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권 실천의 문제였다.[5)] 즉 정치

---

2) 황태연, "포스트모더니즘적 근대비판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6집 2호(1993), 84쪽.

3) 북한의 간부는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로 규정된다. 『조선말대사전(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8쪽.

4) Rutland, Peter, *The Myth of the Plan: Lesson of Soviet Planning Experience*(La Salle: Open Court, 1985), pp.10～11.

5) Kornai, János, *The Social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113.

적 고려에 의한 빠른 성장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경제 관리의 정치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현상이었다.[6)]

또한 고도성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테일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테일러 시스템은 두뇌노동자에 의한 손노동자의 관료적 통제를 조직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지배집단)에 의한 노동자의 관료적 통제를 조직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채택되었다.[7)]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와 테일러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을 통한 경제의 관료적 조정, 국유화 조치를 통한 전사회의 관료체제화를 추진했다. 이 강박적 구조에 조응했던 관료와 인민의 행위가 전개된 시공간이 일상생활세계였다.[8)]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변화 또는 변동은 "구조적 강압에 반응하는 미시적 행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9)]

---

6) *Ibid*., pp.124～127. 계획경제는 수많은 결함, 비일관성 그리고 불확실성, 특히 물자공급의 비신뢰 등이 '자급(즉, 낭비적인 중복)'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기업 사이의 비공식적인 수평적 연대, 개인적 관계의 네트워크, 톨까치(tolkach)로 알려진 공급기관, 그리고 부패 관행을 낳았다. 노브, 알렉,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대안체제연구회 옮김(서울: 백의, 2001), 180쪽.

7) '테일러 시스템'은 "부품의 조립 이전에 제작되어야 하는 부품의 생산을 위한 능란한 수공노동 또는 기계조종노동을 이 노동의 능란한 손기능의 본질적인 세분화의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두뇌기능과 인위적·조직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가속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따라서 자본 아래로의 노동의 실질적인, 즉 구성체적인 포섭을 주로 관료체제적으로 선취하는 것"이다. 황태연, 『지배와 이성』(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223쪽.

8) 우리가 인지하는 구조는 권력과 지식의 결탁에 의해 만들어진 추상적 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들은 그 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인지·실천한다. 즉, 사회적으로 이미 기표화된 구조에 대해 이를 다르게 이해하는 기의로서의 행위자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응과 부적응, 변경과 충돌, 활용과 불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관료집단은 지배와 인민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관료체제는 북한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관료는 지배전략의 시공간을 소비한 주체였으며, 이 소비 방식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변형시켰던 주체였다. 또한 북한 인민의 생존과 저항의 시공간을 소비한 주체였으며, 이 소비의 방식을 통해 인민의 전략을 유지·변형시켰던 주체였다. 양면성을 담지하고 있는 관료들이 대면했던 세계에 대한 접근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 관료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이 잠에서 깨고, 활동하고, 다시 잠에 드는 일상생활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관료들은 일상생활세계와 어떻게 조응·전유(appropriation)·생존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북한사회 관료의 일상생활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 모색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절에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3절에서 일상생활세계의 시공간에서 북한 관료들의 위치와 조건, 환경과 상황 등을 통해 관료들의 일상성을 추적하며, 이를 토대로 4절에서 관료 일상생활세계를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결론에서 간략하게 관료의 일상생활세계의 '창'을 통해 북한의 미래를 볼 수 있을지 살펴봤다.

---

9)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서울: 나남출판, 2003), 8쪽.

2. 사회주의 체제의 일상생활세계

> 일상성이란 일종의 불안한 요동이며, 중단된 순간이다. 그것은 새로운 현재이며, 전통에 폭력적으로 끼어들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선과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하나의 '역사적 상황'이다.[10]

일상은 항상 반복되는 것, 일정한 반복적 유형성을 제공하는 행위조건의 구조로, 따라서 무의미하며 어떤 변화도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11] 즉, 일상이란 의식주처럼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삶의 형태로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루하게 계속되며 별다른 성찰 없이도 일어나는 행위들로 규정하는 것이다.[12]

그러나 일상생활세계 안에서 "이익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계속 전유되고, 판독되고,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그럼으로써 '현실적'으로 되는 실천"에 대한 면밀한 추적이 필요하다.[13] 이는 기존 연구가 구체적인 삶의 과정과 그 미시적 작동보다 이미 규정된 객관적 거대구조에 집중했기 때문에, 실제적 삶의 과정으로부터 유리된 추상적 담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14]

특히 북한연구에 있어 '수령' 구조와 공식 담론 중심의 연구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프리즘으로 여과된 연구 등으로 북한의 관료와 인민

---

10) 하르투니언, 해리,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적 실천,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 윤영실·서정은 옮김(서울: 휴머니스트, 2008), 77쪽.

11) 강수택,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제32집(1998), 560쪽.

12)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29～30쪽.

13) 뤼트케, 알프, " '붉은 열정'이 어디 있었던가?," 『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330～331쪽.

14) 박재환, "문화사회학과 일상생활사회학," 『문화와 사회』, 3권(2007), 269쪽.

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수령과 지배집단의 의도와 기획 속에 만들어졌다고 가정된 북한사회에 새로운 첨가물을 집어넣어야 한다. 즉, 수령을 위시한 지배집단과 관료, 그리고 인민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해왔던 일상생활세계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북한사회의 입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시대가 규정하는 구조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체제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저항하며,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했으며, "동시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들이 체제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구성"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15] 이런 접근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다수의 익명의 존재들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역사기록의 관행이 갖는 '위로부터의' 역사에 대한 '거리두기'로서 '드러나지 않은' '억눌리고 배제된' 인민의 일상생활세계를 드러내자는 것이다.[16]

1) 일상생활세계 I: '반복'과 '전유'의 세계

일상생활세계는 보수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반복성을 특징으로 한

---

15) 이유재·이상록, "프롤로그, 국경 넘는 일상사: 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만남,"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 책과함께, 2006), 29쪽.

16) 단, 일상연구는 다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배계급, 관료집단도 다수의 일상과 동일하게 그런 일상이 존재한다. 일상이란 경계가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모든 행위와 활동은 탐구의 대상이 된다. 즉, 지배계급, 관료계층, '서발턴'〔subaltern: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하층민', '하위주체', '하위집단' 등으로 번역된다〕으로 불리는 하층민이든, 밤과 낮·주중과 주말·공적 시공간과 사적 시공간이든 인간이 생존하는 시공간의 바탕은 일상생활세계이다. 뤼트케, 알프, "일상사 중간보고,"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44쪽.

다. 일상은 깨어나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일터에 나가서 노동을 전개하고 동료들과 만나서 잡담·한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고 다시 깨어나서 시작되는 무미건조한 노동과 휴식의 시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만약 일상이 항상 요동치고 불안하고 단절되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혼돈의 세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상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며, "고정된 세계는 아니지만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과 평온이 유지되는 세계"이며, "습관화된 사고나 행위에 의해 외부에서 나타나는 비일상적인 자극과 충격이 흡수되거나 조정됨으로써 혼란이 수습되고 평정이 회복"되는 세계이기도 하다.[17]

이런 이유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전개되는 삶의 반복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육화(肉化)된다. 따라서 개인이 접하는 일상생활세계의 질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며, 개인 또는 집단은 닥쳐온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지배질서에 대해 즉각적 행동을 전개하지 않는다. 일상은 그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상황의 지속이며 반복이기 때문이다.

<표 1>과 같이 북한 관료들의 일상도 반복적이며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이며, 사적인 시간이나 모임, 만남의 공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휴일에도 오락·여가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 휴일에 그냥 장마당 나가야죠. 장마당 나가지 않으면 그냥 모여앉아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지. 그저 뭐 특별하게 무슨 오락 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 이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18]

---

17)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30쪽.

18) 박○○(부문 당 비서), 개별면접(2008.1.9).

<표 1> 북한 관료들의 하루 일과

함경북도 체육지도위원 및 교원	함경남도 농아학교 체육교원	함경북도 국가 안전보위부 근무	인민무력부 산하 병원 원장	품질감독국 식품품질 감독원
05:00～07:00 기상 및 아침식사	05:00～06:00 기상·세면·식사	07:30～08:30 기상·세면·식사	06:00～07:30 기상·세면·식사	05:00～06:00 기상·세면·식사
07:30～08:00 출근	07:30 출근	08:30～09:00 출근	07:30～08:00 출근	07:00～08:30 출근
08:00～08:30 독보 및 교육준비	07:45～07:55 독보(노동신문)	09:00～10:00 오전 업무[2]	08:20～09:00 회상기 발표 및 독보	08:30～09:00 조회 및 독보
08:30～11:45 교육	08:00～08:30 교육준비	10:00～12:00 오전 업무[3]	09:00～13:00 오전 업무	09:00～12:00 오전 업무
12:00～13:00 점심식사	08:30～12:00 체육수업	12:00～14:00 점심식사	13:00～14:00 점심식사	12:00～13:00 점심식사
13:00～17:00 교수안 준비 및 교육	12:00～13:00 점심식사	14:00～19:00 오후 업무[4]	14:00～18:00 오후 업무[5]	13:00～17:00 오후 업무
17:00～18:00 휴식 및 퇴근	13:00～17:00 교육[1]	19:00～21:00 저녁식사	18:00～18:30 일일과업 수행 정형보고 받기	17:00～18:30 사업 및 생활총화
19:00～19:30 텃밭에서 채소 가꾸기	17:30 총화	21:00～익일 02:00 정보수집	18:30～19:30 회진 및 퇴근	18:30 퇴근
19:30～20:00 저녁식사	20:00 저녁식사	익일 02:00 퇴근	19:30 이후 집에서 TV 시청	
20:00～21:00 휴식 후 취침				

주: 1) 학생 수가 급감한 1990년 후반부터는 체육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교원실에서 자거나, 학교 인근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냄.
2) 독보 없음.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지침 확인.
3) 기관이나 외부로 정보 수집 차 외출,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과 계획대로 진행.
4) 정보 협조원들은 민간인으로 조직되며 지역주민들을 감시.
5) 주말 오후 2~4시 간부학습반, 4시~6시 주체사상에 대하여 학습.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엮음, 『통일한국』, 2008년 5～6, 8～10월호의 '탈북자인터뷰' 중 하루 일과표를 재구성

그러나 일상생활세계는 '반복'이 무의미하게 재생되는 시공간이 아니었다.[19] 즉,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정의했듯 일상성의 공간은 '산 경험'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소외가 발생하는 공간이자, 이로 인해 비판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20] 또한 '산 노동'이 '상황들'을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르게 전유하게 하는 공간이었다.[21]

사회 구성원은 반복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적 강압과 사회로부터의 소외현상에 맞서 고군분투한다. "권력이 부과한 기존질서의 골격을 재채용하고 내부적 변용을 가하며 일상적 투쟁과 저항을 실천하는 문화"를 산출하고, "지배집단이 부과한 체계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한히 변환하고 적응하는 '전유' 과정"을 연출했다.[22] 이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나 규정·규칙·경향을 따르고 그것에 동참하면서도 때로는 이탈하거나 거리를 두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실천했다.[23]

따라서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상생활세계는 오히려 "여전히 열린 결말, 불완전성, 모순, 다중심성 등의 특징을 지닌 실천의 장"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24] 한 개인이 세계의 모든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과 대면하는 순간마다 그 의미는 개인의 사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거나 갱신된다. 지배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확정된 의미로 이

---

19) 조직되고 형식화된 정치에 대해 표면적인 무관심과 침묵이 존재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일상을 통해 나름대로의 잣대로 부단하게 기존의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희구했다.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73쪽.

20) 하르투니언, 해리, 『역사의 요동』, 50쪽.

21) 뤼트케, 알프, " '붉은 열정'이 어디 있었던가?," 351쪽.

22)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2004), 206~209쪽.

23) 뤼트케, 알프, "일상사 중간보고," 47쪽.

24) 하르투니언, 해리, 『역사의 요동』, 50쪽.

해되는 것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생생활세계는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의 속살은 다른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런 전유의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세계는 반복 속의 변화와 치열한 내부적 긴장과 충돌이 중첩되는 시공간이 된다.[25] 그것은 미세한 변화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커다란 사태로 전환되는 요동치는 시공간이다.

2) 일상생활세계 II: '감시'와 '통방(通房)'의 세계

사회주의는 강압적 산업화를 통한 압축 성장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국유화를 통한 전 사회의 관료체제화와 함께 계획경제를 통한 관료적 조정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또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감시와 통제기제의 도입이 필요했다. 이러한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성장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유지·확대하는 것과 병렬적으로 발전했다. 성장과 지배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작동메커니즘은 지배를 관철시키는 관료체제였다. 이 메커니즘의 확대·발전은 지배효율을 위해 인민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항은 대중의

25)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이와 같은 '전유'에 대해 '재채용, 은유화, 침투'라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텍스트 쓰기와 읽기의 방식(쓰기는 지배로, 읽기는 전유로 해독)으로 설명되는데, '재채용'은 텍스트의 어떤 것을 수용하되, 동시에 의미의 다원성을 확보해냄으로써 결국 텍스트의 기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은유화'는 글읽기를 하면서 텍스트를 비틀어 기호의 의미를 전이시키고 그 결과 단어와 문맥과 심상들은 저자의 의도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침투'는 전통적 텍스트의 용어상 기본골격과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주체의 표시를 포함한 보충적 요소들을 도입해 변경시켜 쇄신된 다른 대안적 의미를 텍스트에서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213～214쪽.

권력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착취의 본질이 드러나는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한다.

이 저항의 예방과 지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시'의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그것은 '파놉티콘(panopticon)적 관료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26] 국유화를 통한 전 사회의 관료체제화 위에 '감시구조'로서 파놉티콘이 결합된 것이다.[27] 파놉티콘은 감시당하는 사람만 감시·표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자도 감시·표준화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동일한 원리로 관료체제도 위계적 계선을 따라 감시·표준화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일상생활세계에서 감시의 원리는 도처에 편재(遍在)된 공권력에 의해 구체화된다. 모든 소유권을 박탈당한 관료와 인민의 생사여탈권은 지배자(지배집단)에게 장악되고, 지배에 저항할 시민사회와 공론매체 또한 국가에 귀속된다.[28] 이제 전 사회는 공권력에 의해 도처에 편재된 감시시선과 다양한 법·제도에 의한 규격화·표준화의 작동원리에 의해 구성되어간다. 즉, 지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위계적 통제와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가 작동하며, 이 감시는 훈련된 관료적 인간, '순종하는' 관료적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고도로

---

26) 김종욱,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27) 파놉티콘에 대해서는 Bentham, Jeremy "Panopticon, or, the Inspection House," in J. Bentham,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2(New York: Russel & Russell, 1962, Reproduced from the Bowring Edition of 1838～1843) 참조.

28) 예를 들어 "북한의 모든 방송용 프로그램은 7개의 검열단을 거쳐야 한다.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해당 부서장, 과장, 국장 그리고 방송위원회에 상주해 있는 국가검열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기성에 따라 중요한 프로그램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로 근무한 박원철(가명, 37세, 2004년 6월 입국) 씨의 인터뷰 내용, 『통일한국』, 4월호(2008), 70쪽.

계산된 '강제권의 정치'로 등장한다.[29]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체제화는 '숨 쉴 틈 없는' 일상의 구축을 의미했다. 즉, 관료체제의 위계질서를 통한 추격발전은 사회주의의 일상이 되었고, 지배집단은 강권기구를 통해 인민의 일상을 감시했다. 파놉티콘적 관료체제의 보편화가 바로 사회주의의 일상이 된 것이다.

>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정보망과 군중감시방침에 의해 감시하고, 당적으로는 당 조직별로 감시하며, 행정적으로는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감시한다. 보위부원뿐 아니라 정보 협조원들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감시체제를 그물망구조로 강화하여 말이나 행동에 조금만 의심이 가도 체포해 조사한다.[30]

그러나 감시사회에서도 '통방'의 저항은 지속되었다.[31] 즉 사회주의의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쟁과 소통은 도처에서 발생했다.[32]

---

29) 푸코, 미셸,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옮김(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186쪽.

30)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 근무했던 이대영(가명, 38세, 2007년 11월 입국) 씨의 인터뷰, 『통일한국』, 8월호(2008), 87쪽.

31) '통방'은 감옥의 수인(囚人)들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의미한다. 파놉티콘적 감옥사회에서도 개인 간에는 저항을 위한 저항에 의한 저항의 소통, 즉 감옥규칙을 위반하는 통방이 벌어진다. 모든 교도소 폭동들은 일개 죄수의 개인적 해프닝이 아니라 이런 통방을 통한 모의의 결과이다.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서울: 나남, 1992), 315쪽.

32) 지배자의 지배이익을 위해 주조해내려는 주체성은 파놉티콘적으로 제조되고 기율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중들의 연대적·소통적 활동을 통해서도 주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책, 315쪽. 따라서 이런 연대적·소통적 행위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역사'로서 '인민의 경험 지도'로서 작동하며 저항의 일상적 형태들로 기억·전수된다. 영, 로버트 J. C.,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옮김(서울: 박종철출판사, 2005), 629쪽.

강압적 지배와 파놉티콘적 감시 속에서도 다중은 지배와 감시를 계속 전유하고 판독하고 기망(欺罔)했다.[33] 일상의 반복 속에서 벌어지는 전유는 감시의 일상화 속에서는 통방으로 나타난다. 통방은 일종의 일상의 실천을 통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전술이다.[34]

이와 동시에 개인과 개별집단이 지배이익을 분점할 여지가 있거나, 선전·공포·강압 등에 의해 지배에 공조·공모할 수 있다. 대중의 권력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지배는 강권을 구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도 대중의 권력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권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의 경멸적인 체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인민들의 참여와 동의, 묵인과 침묵, 순응과 동조가 없었다면 북한체제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일상생활세계에서 지배의 감시와 피지배의 통방적 저항은 동시적으로 작동했다. 이 이중성의 공간이 바로 일상이다. 때로는 통방하고, 때로는 공모하는 행위들이 일상에서 중첩되고 모순되게 발생

---

33) 일상생활세계는 집단주의적 행정양식과 이를 재전유(reappropriation)하는 개인적 양식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천은 파놉티콘 행정(관리·차별·분류·위계화)으로 규제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확산되는 부당성 속에서 강화되며, 훈육 영역 밖으로 나가 훈육을 피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속임수를 통해 전개되었다.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96.

34) 드 세르토는 일상의 실천을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강함이란 권력자 또는 사물의 폭력, 강요된 질서 등을 의미), 현명한 책략, 사물을 처리하는 노하우, '사냥꾼의 교활함', 조작, 다형적 시뮬레이션, 즐거운 발견 등으로 설명한다. *Ibid*., p.xix.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은 평범하지만 지속되는 투쟁으로서 '농민저항의 일상적 형태(everyday forms of resistance)'를 추적했다. 농민들은 일상생활세계에서 느릿느릿 걷기, 하는 척하기, 도망치기, 거짓된 순종, 훔치기, 모르는 척하기, 비방, 방화, 사보타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것이 '권력 없는 집단의 일상적 무기(the ordinary weapons of powerless groups)'였다.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xvi.

했다. 도처에 편재하는 시선은 지배와 인민의 공모의 감시 시선이기도 하고, 소통을 통한 관료와 인민의 연대적 모의의 시선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층적이고 모순적인 동시적 시선의 편재 속에서도 그 우월성은 여전히 감시의 시선이다. 그것은 권력으로 동의되고 강권으로 보장되는 시선이기 때문이다.[35)]

3. 북한 관료일상생활세계의 일상성

> 관료주의는 소비에트 사전에서 항상 경멸적 단어였다. 그것은 중간 매개 없이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혁명적 꿈이었다. …… 당 지도부는 그들 자체의 관료적 당원들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교육, 상식, 노동윤리의 부족을 한탄했다. …… 일반시민들은 관료들을 두려워하고, 분개하고, 다투고, 경멸했다. 그러나 모든 이런 불만에도 관료주의는 번성했다. 그들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관료들은 왕이었다.[36)]

---

35) 도구적 수단을 통한 강권지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유화 조치를 통한 완벽한 소유권적 분리, 공론매체와 이동수단에 대한 국가의 장악, 강력한 강권기구의 설립·확대 등을 통해 전사회의 관료체제화를 공고화했다. 그 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론적 시선과 주기적 대의투표, 지배영역 밖의 사적 영역(시민사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중의 소통적 연대가 벌어지고, 지배에 대해 지속적인 저항을 전개했다. 즉, 자본주의국가는 파놉티콘에 맞서는 공공적 여론이 작동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적 여론은 지배에 의해 완벽하게 국가에 귀속되었다. 파놉티콘에 맞서는 공공적 여론에 대해서는 역설적이게도 파놉티콘을 창안했던 벤담이 제안했다. Bentham, Jeremy, "An Essay on Political Tactics," in J. Bentham, *The Work of Jeremy Bentham*, Vol.2(New York: Russel & Russel, 1962, Reproduced from the Bowring edition of 1838～1843) 참조.

36) Fitzpatrick, Sheila, *Everyday Stalinism*(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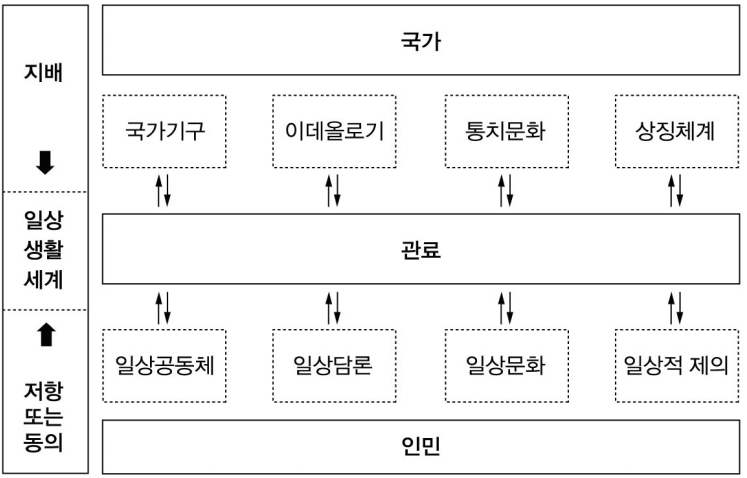
나라의 형편이 어렵다는 구실 밑에 패배주의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일군들은 걸린 문제를 놓고 조건타발을 하거나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깨를 들이밀고 조직사업을 하여 그것을 제 때에 풀어나가야 합니다. ……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이 그저 당의 방침을 전달이나 하고 그대로 하라는 식으로 내리 먹이며 이따금 일을 잘 되지 않는데 대하여 추궁이나 하는 식으로 일하여서는 당의 방침이 관철될 수 없습니다.[37]

북한의 관료들은 관직위계의 원리에 의해 당과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으며, 그 명령수행을 위한 관직권한을 보유했다. 대체적으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과 국가기관의 직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관직위계질서의 내부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규범과 도덕(관료문화), 관직수행을 둘러싼 역할과 임무(관계문화)에 의해 관료의 일상생활세계가 축적·구성된다. 관료들의 '아비투스(habitus)'는 가정의 '혁명화', 국가의 교육체계를 거쳐 군(軍)에 복무하고 당 및 국가기구의 관료로서 살아가는 시공간에 축적된다. 또한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장(場)'의 지속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38] 이 사

37)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김정일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49~252쪽.

38) 사회적 행위자들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육체 내에 편입된 아비투스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각·평가·행동의 형태들로 이루어진 이 체계들은 실제적인 인식 행위들을 수행하게 만드는데, 이 행위들은 그것들이 반응하도록 준비된 조건적이고 인습적인 자극들의 포착과 인지에 근거한다. 또한 이 체계들은 목적의 명료한 입장도 수단의 합리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된 적절한 전략을 생산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은 이 체계를 낳고 규정하

<그림 1> 관료 일상생활세계의 이중성



회적 장은 '각축의 장'이며, 생존과 이익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공간이다.[39] 이 장에서 지배전략과 관료·인민의 다양한 행위들이 관계를 형성한다.

는 구조적 구속 요소들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부르디외, 피에르, 『파스칼적 명상』, 김응권 옮김(서울: 동문선, 2001), 201쪽.

39) 사회 세계는 인식과 인정을 위한, 불가분하게 인식적·정치적·상징적 투쟁의 산물이자 목적이다. 이 투쟁 속에서 각자는 고프먼이 훌륭하게 분석한 '자기소개'의 전략으로서 자신의 유리한 묘사를 강제하려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존재에, 그리고 인정의 상징적 자본 축적에 가장 유리한 사회 세계의 구축 원리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한다. 이 투쟁은 일상적인 존재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 생산의 장들 속에서 전개되는데, 그것들은 정치적 장처럼 사회 현실의 구축 및 평가 원리들의 생산과 강제에 기여한다. 위의 책, 269쪽.

1)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I: 지배와 일상의 변주곡

(1) 일상생활세계 영위하기: '복종'과 '술수'

북한사회의 관료들은 지배와 인민의 중간매개의 위치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감시와 통제의 주역임과 동시에, 공모와 담합의 주역이었다. 따라서 지배와 인민의 중간매개로서 양측을 조정하고, 관료세계 내에서 생존(자리 보전, 승진 등)과 이익(관료적 권한,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복종(충성)과 술수를 통해 전유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국가와 인민이 구성하는 일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 ① 국가기구 대 일상공동체, ② 지배이데올로기 대 일상담론, ③ 통치문화 대 일상문화, ④ 국가 상징체계 대 일상적 제의(祭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배 대 저항 또는 동의의 구조로 수렴될 수 있다.

일상생활세계에서 관료들의 이중성은 중층적으로 드러난다. 관료들은 국가기구에 속하기도 하면서 일상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자이기도 하면서 일상담론의 주조자이기도 하며, 통치문화의 전달자이면서 일상문화를 전승·개발하기도 하고, 국가 상징체계의 추종자이기도 하면서 인민적 제의를 구현하기도 했다. 이 일상생활세계의 이중성 속에서 관료들은 지배에 복종(충성)하면서 동시에 저항의 술수를 구사했다.

일상생활세계는 '이중의 전략'이 구사되는 시공간이다. 인민은 지배전략이 자신의 일상 생활양식을 급격히 변화시키려할 때 묵묵히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변형시키는 이중의 전략을 구사한다. 이들은 "지배의 그물망을 회피하되,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부과된 일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지배의 전략을 변질시킨

다.[40] 역으로 인민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한 체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합리적 선택으로서 수동적 합의의 태도를 보여준다.[41]

북한에서 이런 중층적이고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상황은 지배의 통제 속에 있는 작업장에서 여지없이 나타났고, 통제 영역 밖인 사적 시공간에서도 나타났다. 각종 작업장에서 정보요원의 침투를 통한 인민에 대한 감시, 의식절차(독보회, 총화, 자기비판·호상비판 등)를 통한 통제가 작동했다. 관료들이 이를 대행했다. 동시에 그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문화'가 만들어지고 '생산력 늦추기'가 벌어졌다. 이들의 일상문화와 저항의 상징적 행위들에 대해 관료들은 통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눈감아주는' 주체였다.

인민은 지배가 부과한 규율과 장치들을 헛되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유했다. 독보회와 총화를 의미 없는 형식절차로 소비하고,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은 짜고 치는 방식으로 흘려보냈다. 이러한 전유 과정에 관료의 묵인과 방조가 없었다면, 일상은 '소란함'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관료에게 중요한 것은 지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지시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묵인·방조되어도 무관한 것이었다.

(2) 일상생활세계 영위하기: '거리두기'와 '개입'

인민의 행위는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경향적으로 파괴했다.[42] 공포에 맞서 급진적 저항을 전개하지는 못하지

---

40)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232쪽.

41) 박원용, "스탈린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저항,"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서울: 책세상, 2004), 377쪽.

42) 데네, 하랄드, "일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던가?," 『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202~203쪽. 피츠패트릭(Sheila Fitzpatrick)은 소련의 1933년 대기근

만, 지배가 부과한 작업장에서 생산보다는 자신의 공작활동에 몰두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관료들은 이들과의 대면세계에서 '소수령'으로서 또는 동업자로서 통제하기도 하고 공모하기도 했다.

관료들은 사회적 장의 역학관계에 따라 지배와 인민을 오가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관료 내부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관계와 문화를 통해 시시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적응·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였다. 즉, 지배와 '거리두기', 인민과 '거리두기'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관료들을 길들이기 위해 '현지지도'와 '혁신노동자'의 발굴을 통해 대응('혁명화'를 통한 관료주의 근절)했으며, 인민은 관료에 대해 조소, 테러, 린치, 왕따, 유언비어, 뒷담화 등으로 대응했다.[43]

최근 북한의 상황은 이러한 거리두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관료적 권한을 이용해 공공재산을 유용·횡령·착복·은닉하면서 시장과 연줄을 동원해 생존과 이익에 몰두하는 모습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국경연선지역의 중앙당 비사그루빠 검열과 보위부 검열 등에서 간부들이 마약 유통을 눈감아주거나 직접 마약 판매에 개입한 사례, 국경의 밀수밀매업자를 보호해주고 뇌물을 받은 사례, 그 외 각종 불법행

을 거역할 수 없는 강압(곡식 쿼터에 대한 국가의 요구)과 흔들리지 않는 농민(이러한 요구에 대한 농민들의 고집스럽고 수동적인 저항)이 조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당시 농민들은 집단농장의 이탈을 통한 이윤추구, 각종 루머의 생산을 통한 담론 저항,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저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단화전략에 맞섰다. Fitzpatrick, Sheila, *Stalin's Peasants: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5.

43) Walder, Andrew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166～170.

위로 모은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이 낱낱이 보고됐다.[44]

이는 도처에 편재된 감시시선을 따돌리고 새로운 연대와 모의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상징적 표상이 시장이다. 관료들의 거리두기의 매개체로서 시장의 등장은 관료일상생활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상황은 지배집단의 '개입'을 불러왔다. 지배이익의 유지·확대를 위한 일상적·구조적 감시와 통제 위에 각종 사건과 조건을 구실로 직접적인 '개입'을 전개했다. 이 '개입'의 주체는 관료들이다. 각종 검열·총화사업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긴장된 국면의 조정은 온전히 관료들의 몫이었다. 지배와 인민의 중간에서 '개입'을 통해 조정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 개입과정에서 관료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개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권의 부여가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는 관료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개입을 통해 사태의 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관료들은 개입의 권한을 이중으로 활용했다. 즉, 권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대와 이익을 만족시켜야 했다. 역으로 관료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권한을 활용, 부패를 축소·은폐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취했다.

2)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II: '복종'과 '전유'의 '중간지대'에 선 관료

지배집단의 지배이익 관철을 위한 행정적 주체로서 관료들은 이중적 인물로 묘사될 수 있다. 하나의 얼굴은 지배이익에 복종하는 관료

44) (사)좋은벗들 북한 연구소, 『오늘의 북한 소식』, 제208호(2008.9.10), 2～3쪽.

이며, 또 하나의 얼굴은 지배이익을 전유하는 관료이다. 이것은 분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속성(동전의 양면)이다. 이 교차하고 중첩되며 상반된 하나의 몸체에 두 개의 얼굴이 지배와 인민을 매개하며 지배구조와 인민의 일상에 영향을 끼친다.

(1) 지배전략에 복종하는 관료

지배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관료들의 순응과 일탈, 동의와 저항, 충성과 부패가 발생하며, 이는 일상생활세계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45]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관료체제의 구조적 성격에 기인한다. 지배의 전략과 관료의 행위가 만나는 일상생활세계의 시공간에서 새로운 구조와 행위들이 잉태되는 것이다.

당 -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료체제의 위계계선을 따라 지배와 행정이 관철되었고, 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 '계급의 국가'는 '신분의 국가'로 서서히 퇴행했다.[46] 관료들은 신분에 의해 차별·차등적 권한과 특

---

45) 관료들은 공적기구 내의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이 존재함과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일상생활이 존재한다. 공적 기구 내에서도 공적 역할·임무의 시공간과 함께 동료, 공모자, 상관 등과의 공적 영역 내의 사적 행위들이 동시에 벌어진다. 사적 공간에서도 다양한 만남과 관계들이 형성된다. 지배의 감시와 통제의 욕구가 있는데도 항상 포착하기 힘든 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역으로 사적 시공간 내에서도 감시의 내면화에 의해 발언의 폭과 수위가 조절된다.

46)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 국가'를 표방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혁명 성공세력의 지배 권력 장악을 필두로, 관료적 위계계선을 통해 구성되는 신분구조로 변질되었다. 베버는 신분이 존재하는 상태는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유효하게 요구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특권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베버, 막스, 『경제와 사회 I』, 박성환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540쪽. 따라서 "사회주의는 질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신분질서, 즉 경제제도가 공산당 국가라는 정치구조에 다시 자리매김된 새로운 질서"로 이행한 것이다. 에얄·젤레니·타운슬리,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임현진·정일준·정영철 옮김(서울: 시유시, 2007), 158쪽.

혜를 행사하거나 누릴 수 있는 위계적 구조망 속에 존재했다. 특히 당원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특권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관료들은 신분 구조에 의해 철저하게 구분·분할되고, 복속된 존재였으며, 지배집단에 '매수된 관료'로서 지배를 관철하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역할을 수행했다.[47]

마르크스가 관료제를 '무시무시한 기생적 몸체'라고 규정한 것처럼, '거대한 기생적 몸체'는 지배집단의 명령을 실행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집단과 일체화시키며 생존했다. 그것은 지배이익의 발생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익을 분점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지배집단에 대한 '공포의 동의'였다.

또한 관료들은 대중에게 '군림'하는 존재였다. 지배의 명령권을 활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군림'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점취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민의 입장에서 지배자에게 '매수된 관료'였다.

>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하는데 부부장 동지의 댁에서 굶어 쓰러진 분이 있습니까? 부부장 동진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막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서정후는 날카로운 칼끝에 가슴을 찔리우는 것 같았다. …… 그는 사실 '고난의 행군' 기간에 어느 한 끼도 배를 곯아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기간에 더 잘 먹었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 '말보로' 담배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가지고 다닌 기호

47) "행정 간부진이 권력자에 대한 복종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 …… 이런 보상들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야말로 행정 간부진과 권력자 간의 연대감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토대입니다." 베버, 막스,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7), 27쪽.

품이었다.[48]

2004년 출판된 소설의 핵심 비판대상은 고위급 관료의 관료주의였다. 북한 당국도 관료주의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혀야 했으며 소설을 통해 교화하려고 노력했다.

(2) 지배전략을 '전유'하는 관료

실제 관료조직은 지배이익을 위한 명령권 실행을 전담했으나, 지배집단의 의도가 관료조직을 통해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료조직은 상황과 조건, 관계망과 과거 행적, 현재의 관직실행과정과 미래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복잡하게 현실을 '전유'하는 집단이기도 했다. 즉, 관료들은 북한 지배집단의 기존 전략을 일상생활에서 '이용(소비)'과 '만들기(생산)'로 전유했고,[49] 지배집단이 만들어내고 부가하려는 담론·제도·정책을 '소비'하여 새롭게 변질(생산)시켰다.[50]

---

48) 백보흠, 『라남의 열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345쪽.

49) 표상이 존재하고 유통된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조자가 아닌 이용자들이 그것을 조작하는 것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이런 접근은 권력이 부과한 감시의 망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벽하게 포섭될 것이라는 결정론적 입장이 아니라, " '감시'의 망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집단들 또는 개인들의 분산된, 전술적이고 임시 변통적인 창조가 취하는 은밀한 형식"을 분석해야 한다. 이 창조 방식은 '소비(consumption)'를 통한 새로운 생산이며, '이용(usage)'을 통한 새로운 만들기를 의미한다. 즉, '반(反)감시망(network of an anti-discipline)'을 구성하는 소비자들의 절차와 책략을 의미한다.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pp.xii~xv.

50) 소비와 생산은 목적의식적인 저항행위부터 개인의 소소한 일상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저항의 행위가 모두 목적의식적인 실천만은 아니며, 일상생활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들도 장기축적의 과정 속에서 지배의 전략 또는 구조화된 규범을 전유해 새로운 모습을 만든다. 변화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지배집단은 관료기구를 통해 인민을 관리·통제하려고 기획하지만, 지배전략은 관료기구의 위계 계선을 거칠 때마다 변형·변질된다. 즉, 관료는 지배와 인민을 연결하는 '관철'과 '뒤틀림'의 중간매개이다.

또한 관료조직은 지배집단과 인민의 매개로서 균형(조절)과 불균형(균열)을 발생시키는 집단이다. 관료조직은 피지배집단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이익을 보존하고, 인민에게 능동적으로 군림함으로써 지배자에 대한 충성과 관료적 이익을 보존한다. 역으로 지배집단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인민과의 공모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관료적 이익을 보존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중간매개로서 열세일 경우 조정과 양보의 방식으로, 우위일 경우 강제와 압력의 방식으로 관료적 이익을 보존한다.

> 함경북도 무산 광산에서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디젤유를 1kg당 1,500원에 팔아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해주고 있다. …… 아무리 당국에서 검열을 강화한다고 해도 말뿐이다. 오히려 단속하는 사람들이 디젤유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무산광산에서 청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산광산 보위대대 초소와 고무산의 단속초소 등을 통과하려고, 디젤유 되거리 장사꾼들은 예상 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이 초소들에 쏟아 붓는다.[51]

북한의 관료들은 지배의 전략을 그 본거지에서 굴절시키는 조연이

않는다. 단, 그 변화가 미세해 쉽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Ibid*, xi. 이 미세한 변화의 축적을 추적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지배전략을 전유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텍스트로부터 배제되어왔던 사람들의 '잃어버린 세계' 또는 지배에 의해 '배제된 일상'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51)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 소식』, 제186호(2008.8.11), 6쪽.

었다. 그 관료들이 전유했던 시공간동안 지배와 관료, 관료와 관료, 관료와 인민의 관계역사가 북한사회를 만들어왔다. 즉, 최근 북한의 실패는 이러한 관계 변화의 지속 축적에 의한 것이었다.

관료들은 생존 또는 이익을 위한 부패라는 다양한 비공식적 행위를 통해, 권력이 부과한 지침을 자기 방식대로 이용하면서 인민 위에 군림하는 동시에 인민과 공모하는 '하위문화'를 통해 기존 질서를 변형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지배의 입장에서 '부패한 관료'이며, '변절한 관료'이다.[52]

이렇게 북한의 관료들은 복종과 전유의 '회색지대'에 존재했으며, 그들의 일상성은 '회색지대'의 연속이었다. 스탈린 시대의 관료들이 '작은 스탈린'으로 지칭되었듯이,[53] 북한에서도 도처에 '작은 수령'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관료기구의 위계마다 관료들은 권한을 통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을 '약탈'했다. 또한 역으로 관료들은 인민과 공모를 통해 '수령'과 지배집단의 의도를 감쪽같이 뒤바꾸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유했다. 계획 지시사항을 둘러싼 다양한 서류위조, 뇌물, 흥정 방식은 일상적 통과의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방식은 서서히 변화했다. 이제 정치자본을 경제자본화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료들은 관료적 권한(정치자본)을 활용해 시장에 걸터앉아 이익을 약탈했고, 역으로 시장의 이익을 점취(占取)하기 위해 지배집단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온전히 부패로 드러난다. 북한사회에서 부

---

52)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김일성·김정일의 글과 말들을 추적하면, 북한 사회주의 전 기간은 관료주의와의 끊임없는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53) Fitzpatrick, Sheila,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 Soviet Russia in the 1930s*, pp.29～30.

패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부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패는 부정적인 것이나 현실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식으로 관료와 주민들에게 이해되고 있다.[54]

북한사회에서 관료는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발턴(subaltern)의 사생아'이며 '지배집단의 서얼(庶孼)' 같은 존재이다. 지배집단의 정치권력 안에서 권한을 보장받지만 지배 권력을 획득할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인민 속에서 출현했지만 인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중적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4. 북한 관료일상생활세계 접근하기

>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저 녀인은 행복하고 유족했던 지난 년대들을 추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1980년대만 하여도 이 지방에서는 별로 쌀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 1960년대는 얼마나 유족했던가. 상점마다 과자, 사탕, 기름, 물엿이 가득했고 닭, 오리, 소, 돼지고기들이 고기매대에 줄줄이 걸려있었다. 농촌상점 뒷마당에 돌아가면 커다란 꿀독이 서너개 씩 놓여있었다. 물고기상점에서는 명태가 너무 넘쳐 야단이였다. 인민반으로 집집에 공급되는 명태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터여서 상점의 많은 물고기들이 비료차에 실려 농촌으로 가기가 십상이였다. 생활에서

5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을 탈북한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5% 이상이 북한에서 부패가 일상적이고 관행적이라고 응답했다. 채원호 외,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1호(2006), 311쪽.

걱정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무료교육, 무상치료, 거의 무상에 가까운 식량공급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것이 온 사회의 기풍으로 되어 외국의 한 종교인이 북조선은 그리스도가 내려와서도 할 일이 없는 나라라고 했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바로 지상천국임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한 끼 식량을 걱정하며 구차스레 쌀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다.[55]

북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접근을 위해 고려할 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세 가지 측면은 첫째, 삶의 축적과정에서 만들어진 성향과 구조와의 관계이다. 둘째, 사회주의 규범과 '집단기억'의 충돌로서, 지속 축적된 사회주의 규범과 1990년대 중반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직접 대면한 빈곤과 죽음으로 대변되는 집단기억의 문제이다. 셋째, 변화하는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의 관계 문제이다.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과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불안이 생기는 문제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관료들이 직접 대면하는 현실과의 조응과정을 볼 수 있다. 삶 속에 축적된 성향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사회주의 구조의 문제, 사회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규범과 그 규범을 일그러뜨린 '고난의 행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 등이 이 시대 북한의 관료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세계의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성향과 구조의 부조화: 역사적 관성과 구조적 현실의 결합

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은 성향(habitus)

55) 백보흠, 『라남의 열풍』, 242쪽.

의 문제이다. 성향은 개인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특정한 것이다.[56] 행위자들이 지닌 성향은 그의 삶의 궤적 속에서, 즉 사회적 위치와 처지 속에서 형성되어왔다. 또한 "계급이나 사회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원천"이다.[57]

북한사회에서 관료가 되었다는 것은 당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에 임명된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노동을 통해 구축된 가정과 공동체 생활은 '사회주의적 인간'의 주조, '주체형의 인간' 양성을 의미했다. 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의 난제가 존재하는데도 지배집단이 호명하는 '사회주의 승리'의 미래를 위해 인민들은 자기희생을 감내해야 했다.[58] 관료들 각자가 대면하는 현실의 사회구조는 이데올로기와 학습(훈육)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개인은 그 구조 속에서 고통과 '전망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즉, 관료들의 행위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발전이 아닌 퇴행으로, 노동과 공적 행위는 보상 없는 희생 강요의 연속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의 반복은 충성과 복종의 메커니즘에 의한 행위가 구조와 부조화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하는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속된 성향에 의해 합리적 선택, 즉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행위를

---

56) 부르디외는 "상이한 아비투스에 의해 생성된 실천은 차별적 격차 체계의 형태로 생활조건 안에 객관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차이를 표현하는 특성들의 체계적인 배치도 …… 아비투스는 실천과 실천의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구조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라고 정의한다. 부르디외, 피에르,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최종철 옮김(서울: 새물결, 2006), 312쪽.

57) 에알·젤레니·타운슬리,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104쪽.

58) 바를랭(Eugène Varlin)은 사회주의적 삶에 대해 "위로부터 아래로 노동이 조직되며, 노동자는 자유도 없고 주도권도 없이 그저 의식 없는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도 레닌이 구상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 관료지배의 도래를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아리에스·뒤비, 『사생활의 역사 5』, 김기림 옮김(서울: 새물결, 2006), 632~633쪽.

즉각적으로 전개하지는 않는다.[59] 북한의 관료들은 특수한 신분·가계적 질서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충성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관료계층의 공통된 성향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는 '북한식 관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장기간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의존한 존재들이었다. 국가만이 유일한 자산의 창고였다.[60] 그러나 국가가 그 '돌봄'을 포기하는 순간 관료들의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특히 이 관료적 규범은 '고난의 행군'으로 지칭되는 '집단기억'이라는 충격 속에서 서서히 변화되어갔다.

또한 최근 북한의 변화과정 속에서도 역사적 관성이 구조적 현실과 결합되어 새로운 방식을 주조해내는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 계획경제에 의한 지속적인 '부족의 경제'와 파놉티콘적 관료체제에 의한 '감시사회' 속에서 관료는 생존을 위한 자구전술과 지배의도를 전유하는 '일상의 정치'를 구사해왔다. 이 역사적 관성은 증여시스템의 핵심축인 배급제가 붕괴된 북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저항보다는 생존을 위한 지배와의 '거리두기'로 정향되고 있다. 즉,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강박된 지배의 현실구조를 회피하려는 관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의 의도에 의해 역사적으로 진행된 '강압적 일상화에 의한 탈정

---

59)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결정과는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돌아온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성을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본능' — '아비투스' — 을 따른다." 에얄·젤레니·타운슬리,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105쪽. 이런 원리에 의한다면, 북한 관료들의 수령 또는 후계자에 대한 비합리적·무의식적 동의의 구조가 가능했던 근거를 장기 지속된 생활 속에서 내장되어 체계화된 인식체계로서의 아비투스의 추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0) 관료들에게는 더욱 많은 복지혜택이 제공되었다. "인민은 국가가 행하는 재분배에 중독되고 의존하게 되었다. 일종의 사회주의식 복지의존인 것이다." 위의 책, 231쪽.

치화'가 이제 '시장 지향에 의한 탈정치화'와 착종되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주의 규범과 '집단기억'의 충돌: 기억과 현실의 대면

기억 영역은 현실 행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기억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배가 통제하지 못하는 개인 내면의 숨겨진 심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억이 현실과 대면하는 방식에서 현실은 새롭게 재구성되기도 한다.

북한사회의 공적 담론은 '수령과 후계자'의 교시를 모태로 작동된다. 공적 법률도 '교시' 앞에서는 무력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기획된 '주체의 나라' 속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삶의 규범임과 동시에 윤리·도덕이었다. 이 규범에 의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이데올로기가 기능할 수 있었다. 감시와 통제는 위가 아래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도처에 편재하는 '시선'을 의미했다. 그 감시의 기준은 북한 식 사회주의의 규범으로서 '교시'였다.

따라서 '수령과 후계자'를 따라 배우는 것은 공공의례(公共儀禮)였으며, 사회적 작동방식도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관계를 구축했다. 위계의 계선마다 '수령'을 대신하는 '소수령'(간부)이 존재했다. '소수령'은 교시의 실현을 위한 현장 지휘부였으며, 지배전략을 관철시키는 중추였다. '소수령'으로서의 충실한 삶은 특권·특혜로 보답되었다. 충성과 선물의 호혜관계는 수령과 관료의 결합방식이었다. 또한 특권·특혜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시된 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달성해야 했다. 그것이 위법이든 탈법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지시사항의 완수에 대한 보고였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변형이 발생된다면, 각 개인에게 내장된 기억과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인민과 관료들이 미래의 사회주의 성전을 위해 '희생'(강압적 노동과 빈곤)과 '자기고백'(자아비판·상호비판)을 감내하며 살아온 결과가 나날이 궁핍한 현실로 돌아올 때, '희생'과 '자기고백'은 무의미한 삶의 궤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과거의 향수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하기'는 현실의 불만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민과 관료들에게 1960~1970년대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남아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몰아닥친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기억에 커다란 변형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된다.[61] 국가로부터의 철저한 방치, 도처에서 출몰한 죽음의 공포와 일상적 굶주림, 국가의 복지가 아닌 개인의 생계전술의 구사 등은 일종의 새로운 기억이며, 돌이키기 싫은 공포였을 것이다. 그 기간에 '수령'과 지배집단은 '고난의 행군'을 제기하며 쌀 대신 '구호'로 포장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북한 전체 주민과 관료들이 경험했던 '집단기억'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62]

'트라우마(trauma)'와 같은 '집단기억'의 생성은 기존 사회적 규범과

---

61) 사회집단은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통해 자기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억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호근, "집단기억의 역사," 『역사교육』, 제85집(2003), 164~165쪽.

62) "기억을 재발굴하는 것은 지배에 의해 거세된 다양한 역사경험과 해석의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며, 갈등적 역사해석에 담겨 있는 숨겨진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정부의 표준적 담론이 그것을 아무리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려고 해도, 그와 배치되고 대립되는 기억들을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으며, 이런 기억들은 늘 새로운 방식의 이단적 해석들로 분출되어 나온다." 백승욱, "기억으로 살아나는 현재 속의 과거, 문화대혁명," 『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서울: 폴리테리아, 2007), 18~20쪽.

심각한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주체의 나라'의 관료들은 '고난의 행군' 이전 '소수령'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겪으면서 일종의 '배회자'로 변화되고 있다. '소수령'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 사회적 권위와 명예에 의해 시장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북한의 관료들에게 '시장 기생적 관료'로의 변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관료는 몰락한다.[63] 이것은 '주체의 나라'의 사회적 규범을 대신하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64] 새로운 규범은 생존을 위한 비상구임과 동시에 참담하게 변화된 현실의 탈출구였다. 그러나 그것마저 출구 없는 미래라면, 변화하는 현실은 나날의 두려움과 희망 없음을 의미한다.

3) 생존과 지배전략의 충돌: 변화하는 현실과 출구 없는 미래

북한은 현재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구현이라는 '공허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마치며 제기했던 프로그램

---

63) 관료적 위계의 상위에 속한 관료들의 경우, 관료적 권한을 통해 경제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며, 중하위에 속한 관료라고 하더라도 안면과 연줄관계에 의해 경제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검거하기 위한 국가보위부 등의 검열기관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검열 방조를 대가로 뇌물을 갈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중하위 관료들은 시장 활동을 하는 주민보다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4) 현직 북한기업소 간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개방개혁 조치로 발생하는 이권을 둘러싼 논란, 군(軍)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 중앙과 지방의 신뢰관계 균열로 인한 지방 차원에서의 부패의 구조화·일상화, 축재에만 몰두하는 관리들의 행태, 검열을 통한 뇌물 획득, 전국적 상업유통망의 확립과 장마당 분업의 형성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체의 나라'의 규범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대체되고 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500&num=55811(검색일: 2008년 5월 30일).

추진 10년은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예약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소비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아주 명확한 용어로 집단적인 희생 ― 사회자산의 축적을 위해 전사회가 소비를 유보하는 것 ― 을 요구" 하는 체제였다.[65]

그러나 희생은 변화하는 현실을 해결할 해답이 아니었다. '고난의 행군' 기간에 북한주민과 관료들은 전후 40여 년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면하게 된 북한주민의 심성은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향되고 있다.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공적 위계를 통해 특권·특혜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장에 기생하거나 부패행위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향되고 있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현실을 과거의 방식으로 타개하려고 하지만, 관료와 주민들은 시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타개하고 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행위이다.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민은 삶의 기본조건에 민감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민의 반응은 가장 직접적이다. 그러나 못 먹고 못 입는다고 해서 모든 인민이 궐기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배집단의 '교시와 지침'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강성대국'의 구호가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관료와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몸으로 체현되고 있다. 따라서 지배의 프로그램은 대중의 동의를 획득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관료와 주민은 그 시공간을 새로운 생계구조의

65) 에알·젤레니·타운슬리,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226쪽.

획득을 위해 필사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국가는 이미 지방과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지도자'와 지배집단은 관료와 주민들에게 '강압적 자립화'를 통해 스스로 알아서 생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관료와 주민들은 출구 없는 미래를 열기 위해 시장의 교환세계로 뛰어들고 있다.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국가는 관료와 주민의 '돌봄'을 포기하고, 관료와 주민은 통치세계를 탈출하며 미래의 출구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성대국으로 질주하는 지배집단과 물신화된 화폐의 교환관계세계로 질주하는 관료와 인민들의 행위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질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동'과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 천착하여 접근해야 한다.

5. 결론: 관료 일상생활세계의 '창'을 통해 '북한 보기'

일상생활세계는 '반복'과 '전유'가 발생하는 시공간이며, 권력적 관점에서 '감시'와 '통방'이 벌어지는 시공간이다. 반복되지만 변화하고, 감시당하지만 역감시가 형성되는 시공간이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는 전 사회가 관료체제화되면서 다양성이 실종되고, 획일적 노동문화가 작동하는 세계였다. 모든 사람이 국가기구에 편입되어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회주의에서, 일상은 무미건조하고 변화 없는 매일매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없는 매일매일의 축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생존과 이익을 위한 관료와 인민들의 다양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다. 관료들은 생존과 이익을 위해 복종과 충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술수로서 지배의

<그림 2> 국가운영 작동방식의 변화

1990년대 중반 이전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령에 의한 일원적 권력작동세계	⇨	물신화된 수령과 화폐의 이원적 권력작동세계
계획경제에 의한 일원적 생산세계	⇨	계획경제와 시장의 이원적 생산세계
국가증여시스템에 의한 일원적 분배세계	⇨	시장흥정과 관료연줄에 의한 이중적 분배세계
관료체제적 관직위계에 의한 위계적 명령세계	⇨	관료체제적 관직위계와 시장적 수평교환의 이중적 담합세계

출처: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2008), 393쪽.

전략을 변질시키는 존재였다. 또한 생존과 이익을 위해 지배와 인민 사이에서 어느 때는 '거리두기'를 통해 생존과 이익을 구가하고, 어느 때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생존과 이익을 구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존재였다.

특히 국가기구의 일정한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은 복종과 전유의 구사를 통해 관료적 위치를 유지하거나 승진을 도모했으며, 보존·확대된 관료적 권한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이익을 획득했다.

이러한 다양한 전술들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상생활세계의 반복적 구조 속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과거 북한은 계획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 경제문제의 정치화에 의한 불확실성, 수령·지도자 교시에 의한 불확실성 등이 일상에서 축적되었다. 이 불확실성은 공적 영역에서 지배집단에게는 수동적인 관료의 모습으로, 하위집단에게는 군림하는 관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상의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된 북한의 일상은 다른 방식의 불확실성이 축적되고 있다.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은 장기적인 수평적 공모와 연줄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비공식적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경제문제의 정치화는 이제 정치자본의 경제화로 전환되면서 관료적 권한을 통해 경제자본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령·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불확실성은 시장의 확산과 작업장의 자율성 확보라는 관료·인민의 '일상의 정치'에 의해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상황의 변화는 관료 개인에게는 관계문화의 변화와 생존방식의 변경을 강제하고 있다. 관료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세계는 일상생활세계의 변화와 조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관료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장의 각축구조를 변경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는 관료문화의 새로운 창출로 연결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 장의 재구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관료들의 심성적 변화와 관료 간 관계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의 삶의 이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66] 즉, 관료라는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관료들의 미세하고 끝없이 전개되는 전략과 선택들에 의한 변화 과정과 지배와 인민의 중간매개로서 관료세계를 '두텁게' 읽어냄으로써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 접수: 10월 28일 / ■ 채택: 12월 4일

66) 이희영, "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130쪽.

참고문헌

1. 북한자료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김정일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백보흠, 『라남의 열풍』(서울: 문학예술출판사, 2004).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 국내자료

강수택,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제32집(1998).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서울: 나남출판, 2003).

김종욱,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2008).

노브, 알렉,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대안체제연구회 옮김(서울: 백의, 2001).

데네, 하랄드, “일상에 한발짝 더 다가섰던가?,” 『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뤼트케, 알프, “ ‘붉은 열정’이 어디 있었던가?,” 『일상사란 무엇인가』(서울: 청년사, 2002).

_____, “일상사 중간보고,”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 책과함께, 2006).

박원용, “스탈린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저항,”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서울: 책세상, 2004).

박재환, “문화사회학과 일상생활사회학,” 『문화와 사회』, 3권(2007).

백승욱, “기억으로 살아나는 현재 속의 과거, 문화대혁명,” 『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서울: 폴리테리아, 2007).

베버, 막스, 『경제와 사회 I』, 박성환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_____,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7).
부르디외, 피에르, 『파스칼적 명상』, 김응권 옮김(서울: 동문선, 2001).
_____,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최종철 옮김(서울: 새물결, 2006).
아리에스·뒤비, 『사생활의 역사 5』, 김기림 옮김(서울: 새물결, 2006).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에얄·젤레니·타운슬리,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임현진·정일준·정영철 옮김(서울: 시유시, 2007).
영, 로버트 J. C.,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옮김(서울: 박종철출판사, 2005).
이유재·이상록, "프롤로그, 국경 넘는 일상사: 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만남,"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 책과함께, 2006).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2004).
채원호 외, "북한 관료부패의 시래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1호(2006).
최호근, "집단기억의 역사," 『역사교육』, 제85집(2003).
푸코, 미셸,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옮김(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하르투니언, 해리,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적 실천,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 윤영실·서정은 옮김(서울: 휴머니스트, 2008).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서울: 나남, 1992).
_____, "포스트모더니즘적 근대비판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6집 2호(1993).
_____, 『지배와 이성』(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3. 해외자료

Bentham, Jeremy, "Panopticon, or, the Inspection House," in: J. Bentham,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2(New York: Russel & Russell, 1962, Reproduced from the Bowring Edition of 1838～1843).
_____, *An Essay on Political Tactics,* in: J. Bentham,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2(New York: Russel & Russell, 1962, Reproduced from the Bowring

Edition of 1838~1843).

Borscheid, P., "Alltagsgeschichte-Modetorheit oder neues Tor zur Vergangenheit?," in W. Schieder and V. Sellin(eds.), *Sozialgeschichte in Deutschland* Ⅲ(Göttingen, 1987).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Eley, G., "Labor History, Social History. Alltagsgeschichte: Experince, Culture and the Politics of the Everyday - a New Direction for German Social History?"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61, no.2.

Fitzpatrick, Sheila, *Stalin's Peasants: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_____,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 Soviet Russia in the 1930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Kornai, János, *The Social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Rutland, Peter, *The Myth of the Plan: Lesson of Soviet Planning Experience*(La Salle: Open Court, 1985).

Scott, James C.,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Walder, Andrew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_____, "Der Sozialismus," Max Weber-Studienausgabe(MWS) 1/15 (Tübingen, 1988).

4. 기타자료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186호, 제208호.

평화문제연구소 엮음, 『통일한국』, 4~6월호, 8~10월호(2008).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500&num=55811(검색일: 2008.5.30).

Abstract

The Everyday Life World of Bureaucrats in North Korea

Kim, Jong-Wook(Donngguk University)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see how bureaucrats' everyday life world is performed and engaged. Bureaucrats in North Korea have played a key role in connecting between control groups and the public. Therefore, the system of the bureaucra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s regime mechanism. In other words, the tracing survey of the bureaucrats' daily life world can be the pivotal way to research on North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on the one line.

At first glance concentrating on the everyday life would seem like we can not find some changes and it is just reiterated. However, my closer scrutiny reveals that the people engage in their own life with appropriation, interpretation and composition through the various ways. I believe that we can have the multifarious methods by reconstruction of the bureaucrats' daily life world. The bureaucrats groups have used

the strategy for their political power and benefit through not only the experience share of repetition of the everyday life world but also counter-surveillance under the control group's strict surveillance.

Those ways were performed by tactics covered with affectation of obedience as well as distancing and intervention about the control groups and the people. In a nutshell, the bureaucrats are the beings who preserve their own power, benefit and survival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control group's tactics. Therefore, the valuable way to trace the bureaucrats' everyday life world is to research on not only the relations between the bureaucrats' habits and social structure but also relations between socialism rules and the bureaucrats' collective memories. It is also important to study the conflict with the control group's tactics for their political power and benefit to survive. I am pretty sure that the research on the bureaucrats' daily life world will provide us with another point of view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study.

Keywords: Everyday life world, Bureaucrats, Appropriation, Repetition, Surveillance, Intervention, Habitus, Collective memories